

# ‘인서울’ 12곳, 올 수시 전년비 3.8만명 ↑... N수생 대거 몰려

상위권 수험생들 상향지원 경향  
올 수능 접수 고3 지난해비 줄어  
수시 지원자 늘어 ‘인서울’ 쏠림  
성균관대·중앙대 각각 1만명 ↑

전국 대학 2023학년도 입시 수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서울 주요 대학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 고3 수험생이 지난해보다 2만여명 넘게 감소했음에도 서울에 위치한 이른바 ‘인서울’ 대학 12곳의 수시 응시자는 전년보다 3만8000여명이 더 몰렸다. 수능에서 ‘킬러(초고난도) 문항’ 배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N수생이 대거 몰리고, 상위권 수험생들이 안정 지원보다 상향 지원 경향을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 ◆ 건국대·서강대·성균관대·중앙대 경쟁률 크게 올라

1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건국대·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서울 소재 주요 12개 대학의 2024학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은 전체 21.39대 1을 기록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올해 수능 원서를 접수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32만6646명으로 35만239명이던 지난

해보다 2만3593명 줄어들었다. 주요 12개 대학의 올해 수시 모집인원은 2023학년도보다 395명 늘었지만, 지원자는 3만8712명 늘어 경쟁률은 1.42p 오르며 ‘인서울’ 쏠림은 더 심화했다.

특히 올해 수시에서 성균관대와 중앙대에는 각각 7만1872명, 7만463명이 원서를 지원하며 12개 대학 중 지난해와 견줘 가장 많은 오름세를 보였다. 두 대학에 지난해에는 각각 6만968명, 6만836명이 원서를 넣었지만, 올해는 각 대학에 1만명씩 더 많은 수험생이 몰렸다.

이밖에도 건국대(25.83대 1)가 3.08p, 서강대(29.69대 1)가 2.54p, 서울대(8.84대 1)가 1.98p, 연세대(14.62대 1)가 1.93p 등 경쟁률이 크게 상승했다.

인서울 주요 대학에 지원자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고난도 킬러문항 배제로 상위권 학생의 수능 자신감이 높아진 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종 접수 시 서울권 상위권 대학에 집중화 현상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시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뿐만 아니라 재수생 또는 반수생도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논술전형에 상당수 지원한 것으로 해석된다”라며 “최종 합격 발표 이후 서울 상위권 대학 집중 현상으로 대학,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 ◆ ‘안정’보다 ‘도전’ 지원... 학종·논술 경쟁률 ↑, 교과 ↓

올해 수험생들은 안정 지원보다는 도전적 성향의 지원을 많이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서울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경쟁률은 상승했지만, 교과전형은 하락한 경향을 띠고 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올해부터는 진로선택과목을 정량평가해 반영하거나 진로선택과목의 이수 여부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바탕으로 한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대학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 심리가 다소 둔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했다.

이는 평가 지표가 불확실한 학생부종합전형과 달리 최근 2~3년간의 입학 결과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학생부교과전형의 특징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학생부 반영 항목 축소와 자기소개서 폐지 등의 외적 요인으로 각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요소 변경이 불가피해지면서 합·불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학생부종합전형에는 수험생들이 대체로 공격적 지원에 나섰다. 김병진 소장은 “지난해까지와는 다른 환경으로, 지난해까지의 입학 결과가 올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심리가 수험생의 적극적 지원을 끌어낸 것으로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지난 1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서 한 시민이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서울시, 전통시장 106곳서 할인 행사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시내 106개 전통시장에서 ‘추석 명절 특별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에 5~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시장별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과 사은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서울시내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광장시장(종로구) ▲목동개비시장(양천구) ▲대조시장(은평구) ▲장미제일시장(중랑구) ▲답십리시장(동대문구) ▲비단길현대시장(금천구) ▲까치산시장(강서구) ▲길음시

장(성북구) ▲고척근린시장(구로구) 등 총 106곳이다.

행사기간 동안 온라인 소비문화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 할인판매전’도 오는 2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이어진다.

참여하는 시장은 ▲남대문시장 ▲왕십리무학봉시장 ▲강남개포시장 등 총 63개소이다. 시민들은 쿠팡이츠,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 등 4개 주요 온라인 쇼핑플랫폼에서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 “스크린도어로 도착역 쉽게 확인하세요”

### 서울시, 지하철 역명 시인성 개선 1~8호선 스크린도어 역명 부착 좌석·출입문 등서 도착역 확인

앞으로는 달리는 지하철 속에서도 열차 유리창을 통해 도착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역명 시인성 개선 사업으로 1~8호선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에 역명 표지 부착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열차 안 좌석과 출입문 등 어느 곳에서나 사각지대없이 도착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스크린도어의 가동문과 고



서울시가 지하철 역명 시인성 개선 사업으로 1~8호선 승강장 안전문에 역명 표지 부착을 완료했다. /서울시

정문에 각 소형·대형 크기의 역명 표지

를 붙였다. 눈에 잘 띄도록 디자인 개선과 함께 글씨 크기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 스크린도어에 일부 부착된 역명 표지는 글씨가 작고 사각지대에 부착돼있어 도착역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조치로 출입문 쪽에 있는 승객들은 승강장 안전문 가동문을 통해, 좌석에 앉은 승객 등은 유리창을 통해 역명 표지를 파악할 수 있다.

역명 표지 부착 사업은 지난달 1~8호선 275개 모든 역사에 적용됐다. 단, 9호선과 우이신설선은 이달 내 적용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 성남시 “시 의료원 을 의료손실 적자 633억”

하루 평균 입원 환자 100여 명 불과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 상반기 성남시의료원의 의료손실 적자가 262억 원 발생하여, 연말까지 손실 추계치는 633억 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현 위기를 극복하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7월 개원했다. 건립비용 1691억 원과 성남시가 지난 2016년부터 8년간 지원한 누적 출연

금 2197억 원을 합해 총 3888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성남시는 시 의료원에 지금까지 8년 동안 연평균 274억 6000만 원 정도를 지원했다. 그럼에도 시 의료원은 현재 설치된 509병상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해제되고 일상 관리체제로 돌아오면서 최신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도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100여 명에 불과 병상 활용률은 20% 안팎에 그치고 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뷰티부터 첨단 라이프스타일 선보인다

서울시, 21~24일 DDP에서 개최

서울시는 21~24일까지 나흘간 DDP에서 ‘서울뷰티워크-더 라이프스타일 서울’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사에는 K-뷰티기업 100여 곳이 참여한다.

첨단기업관(아트홀1관)에서는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등 27개 대·중견기업이 참여해 뷰티 최신 트렌드와 첨단 기술을 선보인다. 중소기업관(아트홀 2관)에는 유망 중소기업 공모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발된 56개사가 참여

한다. 뷰티뿐만 아니라 패션·리빙·푸드 등 다양한 트렌드를 제품을 소개한다.

라이프스타일서울 특별관에서는 뷰티·패션·리빙 등 서울의 최첨단 라이프스타일을 견인하는 중소기업들의 테크 제품을 내놓는다. 뷰티 트렌드와 생활 문화 체험하고 첨단 테크 기술을 만날 수 있는 시민참여공간(어울림광장)도 마련된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9월 18일 (월)  
음력 : 8월 4일

수도권 날씨  
22~29°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6:16 | 해질 / 18:36

지역별 날씨: 연천 20/28, 동두천 20/28, 가평 20/29, 파주 20/28, 서울 22/29, 양평 21/28, 인천 22/27, 수원 22/28, 용인 22/28, 평택 20/29, 백령도 20/2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우크라, 크림반도 정조준?... 러 국방 “우크라 드론 6대 격추” /사진 뉴스1  
▲中 헝타 위기 계속... ‘투자금 7조 미지급’ 금융계열사 CEO 체포

▲日정부, 저출산에 공립대 신설 억제... 학생 모집가능 경우만 인가  
▲태국 새 정부, 대마 합법화 유지... 총리 “향락용 허용은 반대”



▲유엔 “리비아 대홍수 사망자 1만1300명으로 늘어”  
▲김정은, 4년5개월만 러 극동연방대 방문... 北 유학생들과 대화 /사진 뉴스1